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곽은미¹, 윤희장^{1*}, 박민애²

¹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부, ²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Effects by Incivility Experienced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f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Stress

Eun-mi Kwak¹, Hee-jang Yun^{1*}, Min-ae Park²

¹Dep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²Dept. of Nursing, Inha University, Ph.D. graduate student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간호대학생 204명이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보고하는 형식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의 평균은 1.58점, 임상실습교육환경의 평균은 2.79점, 임상실습스트레스의 평균은 3.33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정적 상관관계, 임상실습교육환경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은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22.5%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how incivility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ffects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is study enrolled 204 nursing students in the third- and fourth-grades, having practical clinical experi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 to April 30, 2019, by the self-reported method. Data analysis was achieved by apply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Our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values for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was 2.58,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was 2.79,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3.33. Incivility experienced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ppeared to be a static correlation, whereas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incivility experienced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were identified as amulet correlations. Incivility experienced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s on clinical practice stress, where the explanatory power was confirmed at 22.5%.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he necessity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programs to effectively manage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Incivility, Learning Environment, Stress, Nursing Student,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Hee-jang Yun(Gyeongbuk College of Health)

email: hjyun@gch.ac.kr

Received October 5, 2020

Revised December 1, 2020

Accepted February 5,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임상실습은 간호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임상현장에서 시행되는 간호교육의 한 부분이다. 또한 실제 임상현장에서 간호중재를 적용하고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에게는 필수적인 교육방법이다[1].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졸업 전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간호교육에 있어 임상실습의 비중과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실습 기간 동안 간호대학생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 원인으로 이론과 실습 사이의 괴리감, 모호한 역할, 미숙한 역량, 피로감, 낯선 환경,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2-5].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위축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학습의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6] 영향요인을 밝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임상실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반면에 그 관계 속에서 무례함을 경험하기도 한다[7-8]. 무례함(incivility)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 없음, 배려의 부족, 정중하지 못한 행동을 의미하며 서로 존중이 필요한 직장 내에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낮은 수준의 행동이다[9]. 선행연구 결과 임상현장에서 간호대학생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나 공개적으로 꾸짖는 행위로 인해 느끼는 수치심 등의 무례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59.0%가 한 달에 1-2회의 무례함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 횟수가 높았고, 이러한 경험들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10]. 무례함 경험은 소진을 유발하고[11], 임상실습 만족도의 저하, 학습성과 달성의 방해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에 따라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의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실습은 실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 만큼 실습교육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 임상실습 교육환경은 임상실습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체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역량을 함양하고 역할 수행의 자신감

을 갖는데 영향을 미친다[13]. 임상실습교육환경에는 현장의 물리적 환경과 분위기, 의료인이나 대상자와의 관계, 현장지도자의 역할 등이 포함되며 학습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14]. 간호교육자들은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담회, 현장지도자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들은 낯선 환경, 비교육적인 실습환경, 자신감 결여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15] 긴장, 불안, 우울, 무력감 등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한다[16]. 이에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간호대학생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임상실습교육환경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임상실습 적응, 임상실습 만족도, 진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는 연구[17-19]와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 등[4,20-22] 개인의 내면적 특성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상실습기관 내에서의 영향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실습기관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이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례함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교육환경을 확인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실습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무례함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1.1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으로 연구목적 이해하고 자발적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철회하는 경우, 설문지를 최종제출하지 않은 경우,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는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윤리원칙을 준수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기관의 간호학과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서면 동의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내용과 연구 참여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2.1.2 자료수집

연구목적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후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으로 산정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23명으로 산출되었다. 자료는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수집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총 212명이었다. 이에 따라 설문지는 212부를 배포하였고, 그 중 최종제출을 하지 않은 설문지 8부를 제외하여 총 20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연구도구

2.2.1 무례함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의 측정은 Anthony 등[23]이 개발한 무례한 행동 측정도구(UBCNE: The 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or)를 우리말로 번안한 Hong[24]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적대적/비열함/무시 7문항, 배제 5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없음' 0점에서 '매우 자주' 4점까지 0~4점을 배점하여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Hong의 연구에서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6로 나타났다.

2.2.2 임상실습교육환경

간호대학생들이 인지한 임상실습교육환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unn과 Burnett[25]이 개발하고 Han[26]이 수정 · 번안한 임상실습교육환경 척도(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 3문항, 병동분위기 3문항, 간호관리자의 수행 5문항, 환자와의 관계 4문항, 학생 만족 4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1~5점을 배점하여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Han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5였다.

2.2.3 임상실습스트레스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측정은 Beck 등[27]이 개발하고 Kim과 Lee[28]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1~5점을 배점하여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확인하였다.
-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교육환경과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무례함,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86.8%가 여학생이었으며, 대상자의 나이는 20~23세가 141명으로 69.1%, 24~27세가 53명으로 26.0%, 28세 이상이 10명으로 4.9%로 나타났다. 주로 실습하는 병원은 3차 종합병원 45.1%, 2차 종합병원 52.9%, 지역 사회 2.0%로 응답하였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68명으로 33.3%, 만족하지 못한다가 136명으로 66.7%로 확인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y	n(%)
Age	20~23	141(69.1)
	24~27	53(26.0)
	More than 28	10(4.9)
Gender	Male	27(13.2)
	Female	177(86.8)
Hospital Type	Tertiary	92(45.1)
	Secondary	108(52.9)
	Community	4(2.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ot satisfied	136(66.7)
	Satisfied	68(33.3)

3.2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정도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의 평균은 4점 만점에 $1.58 \pm .63$ 점이었다. 하부영역별로 보면 '적대적/비열함/무시'가 $1.47 \pm .73$ 이었고, '배제'가 $1.72 \pm .67$ 로 나타나 배제 영역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교육환경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79 \pm .46$ 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환자와의 관계'가 $3.11 \pm .49$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만족' $2.82 \pm .70$, '간호관리자의 책임' $2.75 \pm .62$,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 $2.66 \pm .67$, '병동분위기' $2.52 \pm .64$ 순이었다.

임상실습스트레스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3 \pm .43$ 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실습업무부담'이 $3.84 \pm .64$, '실습교육환경'이 $3.84 \pm .60$ 로 높게 나타났고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3.31 \pm .63$, '환자와 갈등' $2.97 \pm .69$, '대인관계 갈등' $2.64 \pm .6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204)

Variables	Min-Max	M±SD
Incivility	0-4	1.58±.63
Hostile/mean/Dismissive	0-4	1.47±.73
Exclusionary	0-4	1.72±.67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1-5	2.79±.46
Staff-student relationship	1-5	2.66±.67
Hierarchy and rituals	1-5	2.52±.64
Nurse manager commitment	1-5	2.75±.62
Patient relationships	1-5	3.11±.49
Student satisfaction	1-5	2.82±.70
Clinical Practice Stress	1-5	3.33±.43
Clinical environment	1-5	3.84±.60
Undesirable role models	1-5	3.31±.63
Assignments and workload	1-5	3.84±.64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5	2.64±.67
Conflict with patients	1-5	2.97±.69

3.3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r=.422$,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교육환경($r=-.369$,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의 정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임상실습교육환경이 부정적일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은 부적 상관관계($r=-.358$, $p<.0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204)

Variables	Incivility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Stress
Incivility	1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358**	1	
Clinical Practice Stress	.422**	-.369**	1

* $p<.05$, ** $p<.01$, *** $p<.001$

3.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살펴본 결과 1.972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0.443, 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225로 본 연구의 연구변인들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22.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beta=.332, p<.001$)은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교육환경($\beta=-.250, p<.001$)은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N=204)

Variables	B	SE	β	t
Incivility	.227	.045	.332	5.018***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236	.092	-.250	-3.780***

$R^2=.232, ADJ R^2=.225, F=30.443***$

* $p<.05, **p<.01, ***p<.001$

4. 논의 및 결론

간호대학생들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교육의 영역인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임상실습스트레스 관리의 첫 번째 단계이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련요인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고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 분석결과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 점수는 $1.58 \pm .63$ 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1.88 \pm .65$ 이라고 보고한 Jeon과 Oh[29]의 연구, $1.18 \pm .58$ 로 보고한 Kim 등[30]과 유사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97.5%가 임상실습 중에 무

례함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무례함 점수는 낮은 편임을 보고하였다[31]. 본 연구의 결과도 무례함 점수가 높게 나타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무례함을 느끼는 원인에 표정이나 말투, 눈빛 등 비언어적 표현과 행동이 포함된다는 점[9], 개인이 가진 무례함의 개념과 경험한 상황에 따라 느끼는 바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32]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가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로 한국의 문화나 상황에 대한 반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낮은 수준의 무례함이라도 간호대학생의 대다수가 임상실습 중 무례함을 느낀다면 이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일 것이다.

임상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많은 수가 임상환경에서 무례함을 경험하는데[24, 31] 이 무례함은 특히 환자나 다른 의료인보다 간호사에 의하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33]. Kang 등[3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상실습 중 무례함 경험 연구에서 도출된 4가지 범주 중 3가지의 제공자가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무례함의 하위요인 중 특히 '배제'의 점수가 더 높았던 것을 보면 간호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 등 소외된 느낌에서 오는 무례함의 점수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선행연구에서도 학생들은 간호사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무관심, 무시 받는 느낌을 느끼고, 부당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무례함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역할갈등을 일으킨다. 또한 무례함이나 괴롭힘의 악순환 고리가 될 수 있다[33]. 임상실습기관과 간호사, 간호대학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하겠다.

임상실습교육환경은 임상실습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임상실습교육환경에는 간호관리자의 태도, 병동 분위기, 직원 및 환자와의 관계, 학생의 만족이 포함된다[25].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교육환경 점수는 $2.79 \pm .46$ 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Han[26]의 연구에서는 2.7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Han과 Park[34]의 연구에서는 3.09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하위영역을 보면 '환자와의 관계'가 $3.11 \pm .49$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영역에는 '병동의 업무가 환자위주이다', '병동은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행복한 병동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있어 실제 임상현장에서 환자중심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

은 해당 부분을 높게 평가하며 만족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병동분위기',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 영역은 각각 $2.52 \pm .64$ 점, $2.66 \pm .67$ 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병동분위기 영역은 역문항 영역으로 '간호학생을 학습자라기 보다 인력으로 생각한다', '학생에게 질문 없이 간호사의 지시를 따르기를 바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고,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 영역에는 '학생은 원하는 만큼의 질문을 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은 학생을 간호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이 폭넓은 실습을 하도록 계획 한다'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두 영역의 점수가 낮다는 것은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학습으로서의 중요한 과정이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병원 보조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인식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그동안의 관행과 병원 간호사의 업무부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학과와의 신설 및 증설에 따라 우수한 실습기관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졌고, 병원별 실습학교의 수가 평균 4.2개이며, 동시에 3개 이상의 학교가 겹쳐 실습하는 경우가 많다[35]는 현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은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만 한다[36]. 그리고 이 긴 시간동안 학생들은 실무에서의 간호적용을 학습하고 간호전문직관을 함양한다. 그러므로 임상실습교육환경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스트레스는 $3.33 \pm .43$ 점으로 나타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과 Lee[28] 연구의 3.33점, Hong[24]의 연구의 3.42점과 유사하였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실습교육환경'영역과 '실습업무부담'의 영역에서 가장 점수가 높아 이들을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실습교육환경영역에는 '실습의 목적의 불분명', '학생 역할의 불분명', '학교교육에 대한 배려 부족과 인력으로 충당됨'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실습업무부담 영역은 '실습 중 업무의 과다', '실습과제의 부담', '실습 시 사고발생에의 대비'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선행연구[37-39]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이 실습교육과정, 과제, 실습업무의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에서는 실습의 목적과 학생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실습목표에 부합하는 적당한 과제물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임상현장

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업무를 적당한 수준에서 부과하고 학생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교육환경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무례함과 임상실습교육환경 모두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의 흥미, 만족도, 실습욕구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40]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임상실습에서의 무례함 경험을 줄이고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임상실습교육 전 학생들에게 실습의 목적, 학생들의 역할, 과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상현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은 간담회 및 현장지도자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간호사 및 다른 직원과 간호대학생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간호대학생이 보조인력이 아닌 간호를 관찰하고 학습해야 하는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등 임상현장과 함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의 경험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단일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분석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례함 경험과 임상실습교육환경 등 개인의 내적 요인이 아닌 임상환경요인이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임상실습환경이 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그동안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무례함 및 임상실습환경의 문제는 참고 견뎌야 하는 단순한 문제로 치부해온 경향이 있었다[33]. 본 연구는 간호계의 태움문화, 이탈과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상환경요인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에는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T. McKown, L. McKeon, S. Webb. "Using quality and safety education for nurses to guide clinical teaching on a new dedicated education uni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50, No.(12), pp.706-710, 2011.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111017-03>
- [2] J. Curtis, I. Bowen, A. Reid. "You have no credibility: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horizontal viole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7, No.3, pp.156-163, 2016.
DOI : <https://doi.org/10.1016/j.nepr.2006.06.002>
- [3] S. R.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8-106, 2005.
- [4] S. P. Thomas, R. Burk. "Junior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vertical violence during clinical rotations", *Nursing Outlook*, Vol.57, No.4, pp.226-231, 2009.
DOI : <https://doi.org/10.1016/j.outlook.2008.08.004>
- [5]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2, pp.205-213, 2006.
- [6] K. H. Lee.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nursing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6, No.1, pp.26-34, 2010.
- [7] T. Ferns & L. Meerebeau. "Verbal abuse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1, No.4, pp.436-444, 2007.
DOI :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9.05114.x>.
- [8] C. K. Clarke, D. J. Kane, D. L. Rajacich, K. D. Lafreniere. "Bullying in undergraduate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51, No.5, pp.269-276, 2012.
DOI : <https://doi.org/10.3928/01484834-20120409-01>
- [9] M. Anthony, J. Yastik. "Nursing students'experiences with incivility in clinical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50, No.3, pp.140-144, 2011.
DOI: <http://dx.doi.org/10.3928/01484834-20110131-04>
- [10] S. P. Thomas, R. Burk. "Junior nursing students'experiences of vertical violence during clinical rotations", *Nursing Outlook*, Vol.57, No.4, pp.226-231, 2009.
DOI: <http://dx.doi.org/10.1016/j.outlook.2008.08.004>
- [11] Y. Babenko-Mould, H. K. S. Laschinger. "Effects of incivility in clinical practice settings on nursing student burnou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Scholarship*, Vol.11, No.1, pp.145-154, 2014.
DOI: <http://dx.doi.org/10.1515/ijnes-2014-0023>
- [12] J. K. Kim, J. H. Yoo, E. Y. Cheon.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 pp.316-324,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316>
- [13] K. Midgley. "Pre-registration student nurses perception of the hospital-learning environment during clinical placem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26, No.4, pp.338-345, 2006.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5.10.015>
- [14] M. Y. Park. "Nursing students' stress and anger experience in the clinical sett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7, No.1, pp.7-21, 2001.
- [15] J. Curtis, I. Bowen & A. Reid. "You have no credibility: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horizontal viole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7, No.3, pp.156-163, 2016.
DOI : <https://doi.org/10.1016/j.nepr.2006.06.002>
- [16] J. S. Yoo, S. J. Chang, E. K. Choi, J. W. Park.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8, No.3, pp.410-419, 2008.
DOI: <https://doi.org/10.4040/jkan.2008.38.3.410>
- [17] Y. M. Jang, Y. H. Park.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confidence in performance of core nursing skill on nursing student's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18, No.4, pp.77-86, 2020.
DOI : <https://doi.org/10.22678/JIC.2020.18.4.077>
- [18] H. S. Lee, E. J. Kim.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4, No.1, pp.5-13, 2008.
- [19] Y. J. Lee, H. M. Yang, K. J. Le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ompassionate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0, pp.1-14, 2019.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0.1>
- [20] J. H. Yun, S. J. Boo. "Factors Affecting Levels of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5, pp.1199-1214, 2019.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5.1199>
- [21] M. K. Cho, H. Jeong.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on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11, pp.539-547,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539>
- [22] Y. J. Jeong, C. K. Koh. "Effects of Personality and

- Coping Behavi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4, No.4, pp.296-302, 2016.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6.24.4.296>
- [23] M. Anthony, J. Yastik, D. A. MacDonald, K. A. Marshal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ool to measure incivility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30, No.1, pp.48-55, 2014.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110131-04>
- [24] Y. K. Hong.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and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6.
- [25] S. V. Dunn, P. B. PhD.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2, No.6, pp.1166-1173, 1995.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1995.tb03119.x>
- [26] J. Y. Ha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2, No.5, pp.2595-2607, 2010.
- [27] D. L. Beck,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1991.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19910301-08>
- [28]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98-106, 2005.
DOI: <https://doi.org/10.14257/astl.2016.140.38>
- [29] M. K. Jeon, J. W. Oh. "Relationship between rudeness, burnout,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hich nursing students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 pp.339-346,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339>
- [30] J. G. Kim, J. H. Yoo, E. Y. Cheon.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 pp.316-324,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316>
- [31] Y. Hong, Y. Kim, H. Son. "Effect of nurses'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on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4, pp.323-331, 2016.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4.323>
- [32] L. M. Andersson, C. M. Pearson. "Tit for tat? the spiraling effect of incivility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The Academy of Management. Vol.24, No.3, pp.452-471, 1999.
DOI: <https://doi.org/10.5465/amr.1999.2202131>
- [33] J. Kang, Y. J. Jeong, K. R. Kong. "Threats to identity: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student nurses' experience of incivility during clinical pla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8, No.1, pp.85-95, 2018.
DOI: <https://doi.org/10.4040/jkan.2018.48.1.85>
- [34] J. Y. Han, H. S. Park. "Effects of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8, No.3, pp.365-372, 2011.
- [35] J. H. Song, M. W. Kim.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2, pp.251-264,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251>
- [3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Evaluation manual of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for the second half of 2015:1-50 [Internet].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5 [cited 2016 May 20]. Available from: <http://kabone.or.kr/kabon02/index04.php>
- [37] H. S. Jeong, K. L. Lee.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9, pp.6044-605,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9.6044>
- [38] E. J. Lee, W. H. Jun. "Sense of coher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2, pp.163-171,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163>
- [39] S. S. Hong, J. A. Hong, W. H. Jun. "Spirituality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6, pp.361-369,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6.361>
- [40] S. V. Dunn, P. Burnett.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2, No.6, pp.1166-1173, 1995.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1995.tb03119.x>

곽 은 미(Eun-Mi Kwak)
[중신회원]

- 2011년 2월 : 을지대학교 임상대 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 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북보건대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건강증진

윤 희 장(Hee-Jang Yun)

[정회원]



- 2014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보건학석사)
- 2018년 8월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간호교육, 신규간호사, 현실충격

박 민 애(Min-Ae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노년학과 (문학석사)
- 2021년 2월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2월 ~ 2019년 8월 : 송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20년 9월 ~ 현재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노년학, 간호학, 자아통합, 자기초월